

# 〈楊門忠義錄〉에 나타난 가문회복 방식과 그 의미

유인선\*

- I. 머리말
- II. 부친의 반역과 아들의 고뇌
- III. 반역자 집안의 가문회복 방식
- IV. 가문회복 방식의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양문충의록〉은 반역자의 집안을 다룬 개성적이고 문제적인 작품이다. 대개의 작품들이 선대의 혁혁한 공적과 주인공의 훌륭한 자질을 묘사하면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양문충의록〉은 주인공이 부친의 반역사건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 역시 주인공이 부친의 죄상을 만회하고 가문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룬다.

작품 속에서 양인광은 부친의 죄를 만회하기 위해 자손들과 공적을 세우지만, 이는 오히려 과거의 반역사건을 부각할 뿐이며 외부에서 이들을 시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양인광은 임종에 이르러 사책에서 부친의 죄명과 자신들의 공적을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매듭짓고 가문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문회복 방식은 양인광이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고 가문의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와 결속하고자 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

\*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볼 수 있다. 가문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와 부정적인 역사를 모두 지움으로써 후손들이 새롭게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와 완전히 결속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양문충의록>은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작품의 소재와 주제, 전개 방식 등의 측면에서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핵심어: <양문충의록>, <현몽쌍룡기>, 번역, 가문회복, 역사지우기

## 1. 머리말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명문가의 후손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 등 널리 향유된 작품의 주인공들은 명문가의 후예라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친다. 각 작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문가의 비범한 자손이 그 가문을 더욱 번성케 한다는 공통적인 구조를 지닌다.

본고에서 다룰 <양문충의록>은 그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 번역자 집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sup>1)</sup> 주인공이 번역자의 자손이라는 점은 이 작품이 이전의 작품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문충의록>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번역자의 후손이라는 굴레를 지고 살아간다. 주인공들의 훌륭한 자질은 번역자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소 차분한 편이다. 이에 주인공들이 가문을 현창하고 수호하는 방식 또한 이미 현달한 가문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양문충의록>에 대해서는 정병욱과 김기동 등이 작품을 소개하고 해제한 이래<sup>2)</sup> 강미선, 차충환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1) 현재 <양문충의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43권 43책과 32권 32책 2종이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원서사를 비교적 잘 보존한 것으로 평가받는 43권본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은 각각 이본 비교 및 주변 작품과의 교섭양상을 살핌으로써 작품의 경계와 기본적인 특징을 규명한 바 있다.<sup>3)</sup> 임치균, 허순우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연작관계 및 연작양상을 밝힌 이후,<sup>4)</sup> 강미선은 <양문충의록> 역시 작품상의 기록 및 등장인물, 서사상의 관련성 측면에서 두 작품과 다방향성 연작관계임을 밝힌 바 있다.<sup>5)</sup> 고전소설 연구의 초창기에 <양문충의록>은 작품의 유형성이 강하여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sup>6)</sup> 이는 작품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부자갈등, 부부갈등, 처첩갈등의 일반적인 특징에만 주목한 것이다. 오히려 <양문충의록>은 반역자 집안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성적이고 문제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부자갈등이나 부부갈등, 처첩갈등 등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보다 선대의 반역사건과 그 극복과정에 주목한다면 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양문충의록>에서 주인공들은 선대의 반역사건으로 인해 작품 전반에 걸쳐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이는 작품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주인공은 작품의 초반부에 선대의 반역사실을 인지한 후 작품 전반에 걸쳐 자손들과 혁혁한 공적을 세우며, 후반부에 자신들의 공적과 선대의 죄상을 역사에서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강미선은 이를 ‘가문 콤플렉스’의 극복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양문충의록>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번영한 조부와 가문 콤플렉스를 지닌 양부를 대조

2) 정병욱, 『낙선재문고의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회, 1969, 23면;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833~836면; 송성욱, 『장서각 고소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36~238면.

3)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146, 국어국문학회, 2007;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 이본비교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경계와 작품 성격』, 『어문연구』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4) 임치균, 『<현몽쌍룡기> 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5) 강미선은 <현몽쌍룡기>가 조부를 중심으로 한 <조씨삼대록>과 양부를 중심으로 한 <양문충의록>을 동시에 연작으로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조씨삼대록> 역시 <양문충의록>의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 작품이 일방향성 연작관계가 아닌 다방향성 연작관계를 지닌다고 평하였다(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6~146면).

6) 김기동, 앞의 책, 836면.

적으로 형상화하여 두 가문의 齊家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sup>7)</sup> 이는 반역자 집안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 선대의 반역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인공이 과거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과 가문을 회복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문충의록>의 독특한 설정에 잠재된 문제의식과 작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함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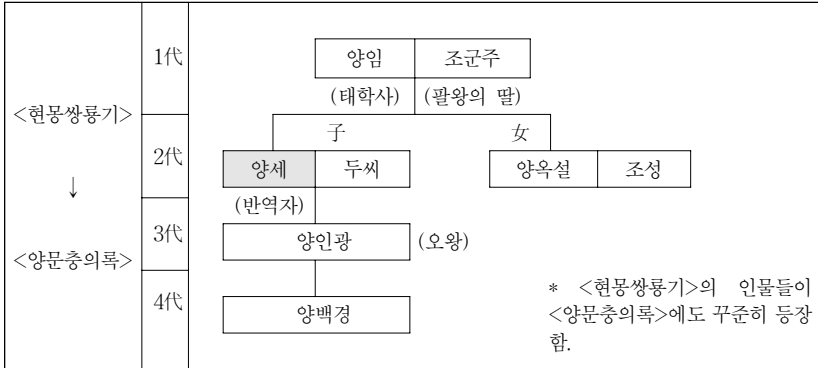
## II. 부친의 반역과 아들의 고뇌

### 1. 부친 양세의 반역

<양문충의록>은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연작과 중심인물 및 사건을 공유하며, 작품의 서사전개상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양문충의록>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sup>8)</sup> 여기서 주인공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선대의 반역사건은 <양문충의록>의 전편에 해당하는 <현몽쌍룡기>에서 벌어진다. 사실상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의 부친 양세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반역사건으로 인해 자손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작품 속에서 양인광은 여러 공적을 세워 오왕의 작위를 받고 그 자손들 역시 현달하지만 끝내 역적의 자손이라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다. 작품의 서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반역사건의 전모와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강미선,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47~157면.

8) <조씨삼대록>과 <양문충의록>의 시간이 일부 겹치긴 하지만 <조씨삼대록>에서 양세의 반역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필요에 따라 <양문충의록>과 함께 양세의 반역사건을 다룬 <현몽쌍룡기>를 주로 논하고자 한다.



<양부 가계도>

양세는 태학사 양임과 팔왕의 외손으로 태어난 명문가의 장손이지만 탕 자들과 어울리며 부친과 반목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부친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누이만 귀애하며 장차 사위에게 사후를 의탁하려 하는 것에 양심을 품고 누이의 앞길을 방해한다. 이에 간부서 등을 위조하여 누이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 몰래 약한들과 결탁하여 누이가 시가에서 폐출되도록 만든다. 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누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sup>9)</sup> 한편으로 양세의 불인한 행사가 계속되자 양공은 가문의 안위를 위해 “차라리 (양세를) 조용히 죽여 좋은 곳에 묻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사위에게 의논하는 데까지 미친다.<sup>10)</sup> 그는 가문과 조상의 명예를 중시하며 충효에 손색이 없는 완벽한 가문을 추구하였지만, 양세는 그러한 염원에 위배되는 자식일뿐더러 가문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태

9) 이지하, 『대하소설 속 親同氣 간 善惡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13, 347~348면.  
 10) “노스이는 집을 반하여 아버지 다려도 거처를 나리디 아니하니 오슈암약(吾雖闇弱)이나 일기(一器) 독약으로 폐히 죽이고즈 후디, 부인을 도라 보면 츠마 못하여 디디하여 디금가지 두 엇시니 너의 큰 슬기 고인의 지니 나의 인약(仁弱)흔 사정을 너와 의문호느니, 너의 명감(明鑑)이 세롭서 흉시(凶事)나 아니홀가 아나나? **절〳 그 몸이 불측흔 곳의 썩져 머리와 몸이 온전터 못하고 문호를 망홀디디 출하리 종용이 죽여 조흔 곳의 못오미 울터 아나나?** <현몽쌍룡기> 권지칠, 96~97면. 원문의 한자 병기와 밑줄 및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며, 이하의 인용문도 그러함을 밝힌다.

로운 자식이었다. 이에 그는 양세의 개인적인 악행과 패륜이 훗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양세를 미리 처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자식일지언정 가문의 명망과 존속에 위협이 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양세는 우연히 자신을 처단하려는 부친의 의논을 엿들은 후, 부친을 원망하고 妹夫人 조성을 원수로 치부하며 더욱 더 패려한 행동을 일삼는다. 심지어 그는 그간의 악행이 모두 발각되자 공모자들과 함께 부친을 죽이고 초왕에게 도피할 것을 모의한다. 가문을 위해 아들을 죽이려 한 부친의 비정함만큼이나 부친을 죽여 가권을 차지하려 한 양세의 패륜이 극대화된 것이다. 양공 또한 아들의 음모를 알고 이를 제압하려 하지만, 양세는 오히려 부친을 난타하고 달아난다. 이로써 양공은 양세가 더 큰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연좌를 피하고 가문을 보존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신(臣)이 명퇴(命途) 기박(奇)과 일자(一子) 세 불인피악(不仁) 거늘 신이 암약(闇弱) 하여 능히 제어(制御)티 못하고 그 비부난륜(背父亂倫) 가살지죄(可殺之罪)를 가히 헤디 못호올디라. 신의 부즈지정을 끈코 쾌히 죽으려 호은즉 아비 명을 홍모(鴻毛)갓티 너져 아조 거쳐 업시 다라나 필연 봉당(朋黨)을 테결(結)하여 나라히 변을 지을지라. 신이 "를 헤아리매 초조망극(楚)과 침식을 폐호 디 오런디라. 맛당이 문져 죽어 조식 교훈 잘못호 죄를 속(贖)호암죽호디, 신이 삼더독조로 일신이 경(榮)호오니 만일 신이 죽소오면 선세(先世) 향화(香火) 아조 끈틸디라. 신의 조(子) 세 대역(大逆)나 신의 머느리 두시는 스텍이 굿스옵고 일점 유치(幼穉) 강보의 잇스오나 작인(作人)이 비범호오니 두예[두씨] 피조(悖子)의 죄로 년좌호면 성세(聖世)의 원통홀 배라. 법은 인주(人主)의 세운 배니 이제 세의 조(子) 난(亂)을 세위 종조(宗子)를 삼고 세를 끈혀 집을 보전케 호시면 유상의 주신 배라. 버거 반부난조(亂)를 구식(求索)하여 잡아 드리라 호샤 강상(綱常) 대죄와 시부(弑父) 역륜(逆倫)을 다스려 죽이시며 신의 또호 부조륜상(父子倫常)을 문히 바린 죄를 다스리시고 (하략) 11)

양공은 아들 양세가 패악하여 아버지를 배반하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고하며, 훗날 나라에 변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한다. 이에 가문을 보호하고자

11) <현몽쌍룡기> 권지십이, 34~35면.

양세와 부자의 인연을 끊고 손자로 대를 잇게 해달라고 청한다. 가문 차원에서 양세의 패륜과 악행을 징치하는 데 실패하자 공식적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화란을 방지하려 한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양공의 모습은 부친이기 이전에 한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가부장으로서의 고뇌와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황제가 양공의 처지를 가련히 여겨 허락하자 양공은 즉시 친족을 모아 사당에 사연을 고한 후, 손자 양인광을 親子로 입적하여 종통을 잇게 한다. 이로써 양세는 양부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양세의 아내인 두씨 또한 양인광과 모자간의 도리가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양세는 양공이 우려했던 것처럼 악소배들과 함께 초왕의 반역에 가담하였다가 끝내 처형당한다. 가문에서 내쳐진 패륜아가 결국에는 국가의 큰 죄인이 되어 징치된 것이다.

반역죄는 삼대를 멸하는 별로 다스려지지만, 황제는 사전에 양세를 축출했던 정황을 감안하여 양부의 구성원들에게 정배 명령을 내린다. 공식적으로 양세는 양부의 족보에서 지워진 인물이지만, 그가 양부의 혈육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양부는 사면된 후에도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간다. 이처럼 고전소설에서 주요가문이 반역사건으로 인해 몰락 직전까지 이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주인공이 반역자의 후손으로 설정된 것 역시 매우 독특한 설정이다. <현몽쌍룡기>에서 양씨 일가의 문제는 양세가 처형당하고 양공 등이 잠시 정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양문충의록>은 선대의 반역사건을 재조명하고 문제시하면서 서사가 시작된다. 이에 <양문충의록>에서는 양세를 대신해 종통을 잇게 된 양인광이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고뇌하며, 자손들과 함께 가문의 낙인을 지우고 명망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12) 가문에 누를 끼친 인물을 가문에서 철저히 분리하고자 한 것은 조선후기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특히 繼後로 들인 자손이 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파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천주교에 연루된 자손을 파악하는 식으로 가문에서 배제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한 예로 金健淳은 淸陰 金尙憲의 7대 종손으로 입후되었는데 1797년 姜舜天의 옥사에 연루된 후 가문에서도 파악당했다(『순조실록』, 1801년 3월 27일 기사;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69~270면).

## 2. 아들 양인광의 고뇌

<양문충의록>은 양인광이 자신의 근본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그는 부친의 존재를 모른 채 공적을 세우며 승승장구했지만, 꿈속에서 부친 양세를 만난 후 일순간 자신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다. 그동안 부모로 알았던 양공 부부가 사실은 조부모이며, 형수인 두씨가 모친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자신이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양세는 양인광이 王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이 꿈에 나타나 진실을 일깨워 준다.

왕이 망”(茫茫) 중 일야(一夜)는 일장신몽(一場神夢)을 어드니 일지 남지 더인의 형상이요, 머리 칼 흔적이 ”서 울며 일오더 “인광아, 네 몸이 위국인신(爲國人臣)하여 죽치 안광의 거하고 복녹이 제미(濟美)하디 홀노 칼 아리 죽은 아버를 위로치 안이코 네 몸이 님신양명(立身揚名)하고 이현부모(以顯父母)하미 무어 살 위하미뇨?” 왕이 더경하여 눈을 드러보니 복식이 선비오, 얼굴 풍치 오히려 티스로 굶든 곳이 있더라. 광희 경식 왈, “턴디간 숨기지 못하고 속이지 못홀 일은 부즈턴윤이라. 명” 이 양티샤의 말년 독지니 신명(神明)이 엇지 고이훈 말을 망영(妄靈)도이 하노뇨? 사름이 윤기(倫紀)를 살난(散亂)케 하리요?” 기인(其人)이 한습지코 스미 가온더로서 훈 권 칩을 주어 왈, “네 잠을 찌여 이를 상고하라. 니 엇지 조곰이나 허언을 하리요? 니 검하경혼(劍下驚魂)이 되어 턴하의 눈을 못감는 비오, 양노(兩老)의 이르러난 불회 심시의 춤혹하고 스후의 뉘웃는 탄이 천대(千代)의 미쳐 즈식이 ”사디 능히 신후(身後)를 이지 못하고 ”혼(孤魂)이 만대(萬代)의 더러은 녀시 되어 너히 녁효(榮孝)를 참네(參預)치 못하니 뉴한이 만대의 불멸하리로다.” (중략) 가삼을 어로만져 기리 탄식하고 심스를 억제하기 어렵더니 버기 우허 업던 일권 칩이 잇거늘 더욱 경황하여 보니 그 가운데 양세라 관포(冠袍) 강등하던 일과 국왕 궁중의 가 호가지로 반역하던 일을 낫” 치 기록하여 진종(眞宗)의 결사와 양티스의 상고며 즈기로뻬 부자눈기를 버혀 티스의 아들노 훈 쇼러 녀” 하니 광희 이를 보미 마음이 차고 뼈 뜰헨지라.<sup>13)</sup>

양세는 죽었던 당시의 모습으로 아들의 꿈에 나타나 생전의 불효를 후회

13) <양문충의록> 권지일, 55~59면.

하고, 아들이 자신의 身後를 잇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자 그는 과거의 사건들이 기록된 책을 건네주며 양인광만 알지 못했던 진실을 일깨워 준다. 그동안 양인광은 자신을 대학사의 아들이자 팔왕의 외손자로 알고 있었으며, 가문에 대한 자긍심도 상당하였다.<sup>14)</sup> 양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독자들까지 양세의 존재를 알지만 정작 본인은 부친의 존재를 모른 채 공적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며 가문을 창성케 하였던 것이다. 공적이 쌓이고 가문이 번성할수록 양세의 반역사건은 작중의 현실과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작 양인광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갈등은 더욱 더 고조된다. 이에 꿈을 통한 양세의 등장은 서사에 내재된 갈등을 일시에 터뜨리며 양인광이 내적인 갈등을 겪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꿈에서 부친을 만난 후 그는 그동안 자신이 구축해 온 삶의 기반이 모두 붕괴되는 상실감을 맛본다. 일순간 명문가의 후예에서 대역죄인의 아들이자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가르친 강상죄인이 된 것이다. 가문과 자신의 자질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새 수치심으로 돌변하며, 그는 죄인인 부친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부친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함께 죄인의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세간의 평가가 그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이다. 그동안 그는 명문가의 후예로 자부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과거의 삶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옥죄는 요인이 된다. 그는 충격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문불출하고 죄인으로 자처하며 지낸다.<sup>15)</sup> 고모부이자 스승인 조성이 양인광을 위로하며 개유하지만, 양인광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

14) 이러한 부분은 양인광과 조월염의 결합을 그린 <조씨삼대록>에 잘 드러난다. 그는 밤에 조월염의 침소에 찾아가 월염의 유모에게 “너도 식견인은 유량이라. 네 쇼저의 풍신을 위하 여 넘컨디 어디 날만흔 영준(英俊)이 있느뇨? 이리코 나간 후는 여등(汝等)도 날을 주군(主君)으로 알나. 진왕이 비록 왕공의 귀히미 이시나 내 또한 국초 양총부 격파(嫡派) 손이오, 양승상 진손(眞孫)이오, 양티스 지(子)며, 팔왕왕의 외손이라. 문지고히(門之高大) 쇼저괴 북그럽지 아닐지라. (하략)” <조씨삼대록> 권지십사, 54면.

15) 차일(此日)부터 홍포(紅袍)와 시슈(緋綬)를 그리고 디원슈 디장 장군 인슈를 글너 바리고, 머리를 집 버기의 혼 번 더저 혼 번 누으믹 스티로 낫출 가리오고, 누으믹 천 번 부러딕 또 혼 만 번 혼드러 드른 체 아니” 엇지 식음(食飮)을 차즈며 슈쇼를 정허리오? 날이 맛도록 폐목좁와하여 식음을 폐흐니 주야(晝夜) 목인(木人)쳐로 하여 혼 죽엄[죽임]이 되여시니 왕궁이 진동호고 (하략) <양문충의록> 권지일, 60면.

의 낫출 들고 하늘을 볼 길이 업사니 즈분필사(自分必死)호여 이 붓그리오  
 물 씨산 후 선인(先人)을 비와 불효를 속죄코져”<sup>16)</sup>한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슬프다! 신이 사정을 뉘게 고히며 몸이 문희의 망멸(亡滅)호 죄늬(罪律)이 욱  
 사무지(欲死無地)나 성은이 여천(如天)호사 목숨을 스호시고 문호를 보전케 호시  
 니 도시 성덕이라. (중략) 신의 아비 국가 역신(逆臣)이라. 신의 도리로 이룬 죽  
호 가지로 늘법(律法)의 나아가 칼의 업덜지언정, 하늘을 무릅써 강상(綱常)의 죄  
인이 되오미 삼십년이라. 신의 엄치 꺾사온 디 업살 거시오니 신이 스스로 찌다  
 른 후 차마 엇지 도항의 낫출 드러 뉴림(儒林)의 우인(愚人)이 되어 사람의 타비  
 룰 보리잇고? (중략) 오직 석고디죄호여 죽으믄 바라나이다.<sup>17)</sup>

양인광은 상소문을 통해 자신의 가문을 보존케 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  
 며, 본인이 逆臣의 자식이자 강상의 죄인임을 고하고 죄를 청한다. 이에 황  
 제는 이미 선대의 황제가 처결한 일이라며 그를 위로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 부친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양인광은 양공과 마찬가지로 충효를 견비하고 안팎으로 변영하는 완벽한 가문을 꿈꾸었으며, 실  
 제로도 왕공의 딸을 아내로 맞고 오왕의 작위를 받는 등 자신의 이상에 부  
 합하는 가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부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양인광은  
 양공과는 다른 입장에서 가문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양공은 명실상부한  
 명문가의 종손으로서 가문의 번영을 이루었지만, 양인광은 반역자의 아들  
 이라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양부라는 동일한 가문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문의 모습은 유사한 듯 다른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양인광에게는 가문의 번영 이전에 반역자의 가  
 문이라는 낙인을 지우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으며,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  
 는 가문을 이루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된 것이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인광이 임종 전에 남긴 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인광은 여전히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출사하  
 며,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좀 더 의식적으로 충효를

16) <양문충의록> 권지일, 67면.  
 17) <양문충의록> 권지일, 77~79면.

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그는 자신의 임종 직전까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지고 살아가며, <양문충의록>은 작품 전반에 걸쳐 부친의 죄를 의식하며 가문의 명망과 입지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양인광의 모습을 그려낸다.

### III. 반역자 집안의 가문회복 방식

#### 1. 반역과 공적의 등가교환

양인광이 부친의 존재를 인지한 후,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의 서사는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일종의 원죄의식이 깔린 채 전개된다. 그는 그동안 형수의 예로 대했던 두씨와 비로소 모자의 정을 나누며, 두씨는 괴로워하는 양인광에게 다음과 같이 충효에 더욱 더 힘쓸 것을 경계한다.

부인이 슬허 통곡 왈, “나의 만단회포(萬端懷抱)와 궁천지통(窮天之痛)은 하늘 빛과 같이오? 금일 천눈이 완전하니 스랴던 줄이 오리혀 다형치 아니라? 너 아히 과도히 몸을 상(傷)히오지 말나. 네 부친이 입의 군치(君親)과 득죄하고 스류(士類)의 서지 못할 죄를 무릅써 양시 일문이 삼족의 화를 면치 못할 거시로디 성은 이 호천망극(昊天罔極)하사 일문의 화를 면케 하시고 여피(汝母) 고당의 안거함도 무비성은(無非聖恩)이라. 네 능히 성납히여 위국인신(爲國人臣)하고 왕후(王侯)의 이르니 네 몸을 댓가 진충보국하여 성은을 만분지일이나 갑스오미 울코 백발(白髮) 존당(尊堂)의 ”지와 편모의 궁천을 위로하미 울켜늘 엇지 고이흔 거조를 하 나뇨?”<sup>18)</sup>

대개의 작품에서 충효는 으레 강조되는 덕목이다. 하지만 남편[양세]의 반역으로 인해 큰 풍파를 겪었던 두씨가 아들에게 충효를 이르는 것은 다른 작품들과 다소 다른 함의를 지닌다. 부친의 반역사건을 인지하기 전까지 양인광에게 충효란 통상적으로 행해야 할 덕목에 불과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되었기 때

18) <양문충의록> 권지일, 69~70면.

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공직’은 충효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부친의 반역문제로 인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절박한 것이었다. 이처럼 공적으로 죄상을 갚고자 하는 의식은 전대의 소설로 알려진 <소현성록>의 반역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현성록>에서 소세명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명문가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한으로 묘사된다. 소세명은 도적 수천 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반란을 도모하는데, 우연히 그의 부친이 현장을 목격하고 형 소운성에게 알림으로써 사태를 진화한 것이다. 소운성은 동생이 천륜으로 인해 고뇌하자 가문과 대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처단할 것을 촉구하며,<sup>19)</sup> 자신이 직접 나서 조카를 죽이고 난을 평정한다. 혈육의 정보다는 가문의 안위를 중시하여 자신이 직접 처단에 나선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모습은 양공이 아들 양세를 처단하려다 실패하자, 공식적으로 양세를 축출했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공의 선택이 궁여치책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소운성은 충효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자신의 가문을 철저히 단속하고 직접 가문의 죄과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반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같은 집단 내에서 반역자 등 죄인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집단 차원에서 죄과를 분명히 밝히고 철저히 징치하는 것은 충효라는 대의명분 외에도 정치적인 안정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sup>21)</sup>

이와 달리 <양문충의록>에서 전대의 반역사건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

19) “현제(賢弟) 엇더 이러랴 약호뇨? 조식이 사오나오나 관서할 일이 잇거니와 이는 그러티 아니호야 나라를 반하여 토디로써 도적의게 투항호니 굴은 역신(逆臣)이라. 만일 이 말이 날 단대 禍(禍) 삼족의 밋츠리니 당〓 이 그 슈급(首級)으로써 사면하홀디라. 부즈의 스정을 인호야 대화(大禍)를 브르리오? (중략) 네 호 조식을 인호야 부모형제의게 스화를 짓치라 호느냐?” <소현성록> 권지십사, 71면.

20) 정선희, 『영웅호결형 家長의 始原-〈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77면.

21) 이러한 예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조대에 발생했던 戊申亂 등 과거의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신란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 국왕을 옹립하기 위해 강경파 소론이 주도한 반란사건이었다. 조정에 남아 있던 소론 세력들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소론이 주도한 무신란 진압에 앞장섰으며, 이후 무신란의 전말을 정리한 『勘亂錄』을 편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곧 무신란의 전말은 자기 집단의 죄과를 해결하고자 소론이 같은 소론을 처벌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한국사연구회, 2014).

건이며, 가문 내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기에 그 여파도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로 인해 양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자손들은 평생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문충의록>에서는 양인광과 그의 자손들이 아무리 큰 공적을 세우더라도 현재의 공적으로 과거의 죄상을 갚는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충효를 다해 공적을 쌓을수록 선대의 죄상은 현재의 공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다음과 같이 그들을 위협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복아(僕射) 왕경유와 무마도위(駙馬都尉) (위)창이 출반주왈(出班奏曰), (중략) “인광이 상(常)히 이르기될, ‘님군이 비록 윤상의 처음이나 아버지 나온 후 님군을 아는지라. 선인(先人)이 무죄히 녀당(逆黨)의 춤네하여 선제(先帝) 후형을 바드미 견디지 못하여 무복원스(誣服冤死) 하니, 니 본디 금상(金上)으로 양입지 못홀지라. 디장뷔 경제디략을 품고 엇지 부형의 원슈를 갓지 아니리오?’ 슬하의 〇들이 열이 넘고 궁내(宮內)의 스후지(伺候者) 천여 인이라. 흐리며 텃하 병권이 너 장악의 잇시니 임의로 부리며 봉국(封國)의 지모닐스(智謀烈士)와 강병밍장(強兵猛將)이 부지기쉬라. 흥번 뜻을 정히미 디공을 춤밧타 어드리라. 엇지 지덕(才德)을 품고 원슈의게 굴히리오?’ 언단(言端)이 녀차(如此)하고 강병이 무슈하니 만조제신(滿朝諸臣)이 뉘 모로리오마는 입을 여지 못하난 바는 그 위권이 융성히미라.”<sup>22)</sup>

외부에서는 양부의 위상을 시기하여 모함할 때마다 양세의 역모사건을 일컫고, 양인광에게 역모 혐의가 있다고 고변한다. 양인광이 부친의 죽음을 원망한다고 참소하는 한편 그가 자제들과 병권을 장악하고 위세가 높은 점을 들어 양부의 역모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는 부친의 죄상을 갓고자 쌓은 공적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준다. 양부에서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선대의 반역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황제는 양인광을 엄호하며 공식 석상에서 과거의 일을 제기하지 않도록 했지만, 막상 고변을 들으면 “그토록 잘 예우해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대역을 꾀하였는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수많은 공적으로도 양부는 여전히 과거의 반역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자손들이 부부갈등을 겪을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22) <양문충의록> 권지팔, 100~101면.

역적의 자식이라 능멸하거나,<sup>23)</sup> 전장에 나가 반란을 제압할 때 상대가 “양가 녀지, 저도 역적의 증손이언만은 남의 죄를 말”한다며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4)</sup>

황제가 양세를 용서한 것과는 별개로 양세는 여전히 반역자 명단에 남아 있었으며, 양부는 안팎으로 공격당하며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양인광과 그의 자손들이 공적을 세워 과거의 반역사실과 현재의 공적을 맞바꾸려 한 시도가 좌절된 것을 의미한다. 가문의 오명을 지우기 위해 공적을 쌓고 가문을 현창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모 고변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과거의 사건을 부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양인광은 외부의 모함으로 인해 부친의 죄명이 거론되는 것을 괴로워하며, 다시 세상에 출사하여 부친을 욕되게 만든 것을 한탄한다.<sup>25)</sup> 결국 그는 공적으로 부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방법, 즉 역사적 흔적 지우기에 돌입한다.

## 2. 역사적 흔적 지우기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에게 부친의 죄상을 만회하고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평생의 과업이자 숙원이다. 그는 과거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임종을 맞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슬픈 인생으로 자처하며 부친의 죄를 안고 살아간다. 비록 황제의 知遇를 입고 다시 세상에 나섰지만, 그는 부친의 반역으로 인해 항상 역모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자신의 충정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처한다. 이에 의식적으로 충효를 행하고 공적을 세우지만, 공적으로 부친의 죄를 대신하는 데 실패하자 결국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기록을 지우려 한 것이다. 양인광은 이미 오래전 죽

23) “인광 적지(賊子) 본디 녀축지지라. 황은(皇恩)이 망극하사 약간 지조를 앗기사 준용하시면 큰 허물을 업시 더역지뉴(大逆之類)를 벗기시니 스스로 허물이 업산 양하여 증중거오(自重倨傲)하기를 망즈히 하여 (하락)” <양문충의록> 권지유, 485~486면.

24) <양문충의록> 권지십사, 148면.

25) “니 불초하여 고요이 몸을 감초와 세상의 출너치 말고 김히 산님의 숨어 선의혈속이나 니 어시면 세상 욕언(辱言)이 다시 더오지 으닐거살, 공명을 탐하여 두 번 녀옥(逆獄)의 걸너 욕이 선친과 맞츠니 니 마더를 생각한 작 간히 눈물나물 씨듯지 못흐느니 (하락)” <양문충의록> 권지십사, 288면.

보에서 사라진 부친이 사책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 거론되기에, 사책에서 또한 부친의 존재를 지워 욕을 덜고자 한 것이다. 다만 사책의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는 임종에 이르러서야 상소를 올려 자신의 슬픈 소회를 고한다.

이제 신의 지극히 붓그리며 지극히 절위환난 바는 신의 아버 일흠이 스책(史冊)의 역명(逆名)을 벗지 못흐물 신이 구원의 도라가나 눈감은 귀신이 되지 못흐 올지라. 신의 즈식의 약간 공이 잇다흐샤 공(公)을 봉흐시며 왕(王)을 칭흐시고 후(侯)를 주샤 외람이 왕공(王公)의 거흐오니 더러운 일흠이 스책의 올을지라. 원컨더 신의 여러 부자의 일흠을 다 속(劬)흐시고 또 초왕과 신의 아버를 썩혀주시면 스기(史記)에 일흠이 업스면 후세인(後世人)이 신의 부자를 모로이이다. 소원을 일위 주실컨더 성상의 성성지은을 구원의 감골각심[刻骨感心]히리로쇼이다. 말삼을 맞츠며 눈물이 흘너 가슴을 격시니 (하략)<sup>26)</sup>

양인광은 오랜 세월 동안 부친의 죄명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임종에 이르러 공식적인 기록을 모두 지우는 방식으로 부친의 일을 완전히 매듭짓고자 한다. 부친뿐만 아니라 반역의 주도자가 되었던 초왕의 이름까지 지움으로써 반역사건 자체를 사책에서 지우려 한 것이다. 양인광의 간청에 황제가 역모 사실만 삭제하고 양부의 공적은 그대로 남기려 하자, 그는 자신들의 공적까지 모두 지워주기를 거듭 간청한다. 부친의 죄명과 자신들의 공적이 모두 지워져야 사사로움을 피할 수 있고, 부친의 죄도 완전히 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자식으로서 부친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려니와 사책을 수정하여 가문의 오명을 완전히 씻고자 한 것이다. 양인광은 생전에 선친의 죄를 만회하기 위해 자손들과 수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그 결과 양부는 왕후장상이 가득한 별열가로 거듭났다. 하지만 공적이 높아질수록 선대의 죄도 함께 부각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뒤따르자, 그는 부친의 반역사실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자신들의 공적도 함께 지우는 길을 선택한다. 즉 죄상과 공적을 상쇄하여 양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지우고자 한 것이다. 이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양세와 양인광, 양인광의

26) <양문충의록> 권지사십삼, 522~523면.

자손들 3대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 가문의 명망을 높이고자 사책에 조상의 사적과 가문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 노력하지만, <양문충의록>은 반대로 사책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양인광은 선대의 죄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아예 자신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모두 삭제하려 했지만, 그와 그의 자손들이 여러 차례 큰 공적을 세운 이상 공적의 결과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황제는 양인광과 그 자손들의 공적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도록 하는데, 이는 한 가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른 가문에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거짓된 기록으로 진실을 감추는 것까지 감수할 만큼 <양문충의록>에서 주인공 가문의 명예회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은 부친의 죄명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역사적 흔적 지우기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양인광이 반역자인 부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에서 작품이 시작되고 부친의 과거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맺는 구조와 잘 부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문회복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IV. 가문회복 방식의 의미

##### 1. 과거 청산과 국가와의 결속 지향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이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사책에서 부친의 반역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양인광은 자신과 자손들의 공적까지 지우며 양부의 인물들이 공식적인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마저 감수한다. 이처럼 가문회복을 위해 사책의 기록까지 지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양인광의 개인적인 측면과 양부라는 가문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양인광은 부친의 존재로 인해 평생 동안 고통받

있던 인물이다. 그가 부친의 반역사건을 알게 된 후 세상과 절연하려 한 것은 강상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인의 자식’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친의 반역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일단락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사건이었다. 과거의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양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으며, 부친의 죄명이 사책에 전하는 한 그가 아무리 큰 공적을 세우고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양부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책에 기록된 부친의 죄명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작품에서 양인광은 공식적으로 단 두 차례, 그가 부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와 훗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부친에 대해 언급한다. 처음 부친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황제에게 자신이 죄인의 아들이므로 인륜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강상죄인임을 고하였으며, 임종 전에는 부친의 죄명이 사책에 남아 수시로 거론되는 현실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였다. 이에 죽음을 앞두고 황제에게 부친의 죄명을 지워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양인광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품어온 숙원을 고한 것은 그의 소원이 그만큼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동시에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 의지를 드러낸다. 외부에서는 그동안 그가 반역자의 아들이며 양부가 반역자의 가문인 것을 시비했지만, 사책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양부를 문제 삼을 만한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곧 역사적 흔적 지우기는 양인광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자신에게 부여한 평생 동안의 임무를 완수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부라는 가문의 측면에서도 역사적 흔적 지우기는 양부가 가문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된다. 양부는 가문의 부정적인 역사와 긍정적인 역사를 함께 지움으로써 일차적으로 과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자 했다. 이로써 양부는 일시적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로부터 가문의 역사를 철수하지만, 이는 양부의 후손들이 훗날 국가와 새롭게 결속할 수 있도록 일부 후퇴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역사들을 지움으로써 양부는 반역자의 가문이라

는 낙인을 지우고 가문과 가문, 가문과 국가라는 관계 속에 온전히 포섭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직 실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양문충의록>의 후속작이 존재한다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sup>27)</sup> 후속작에서는 반역자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지워진 상태에서 양부의 자손들이 가문을 현창하는 내용을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예비한 것은 조선 왕실의 사례에서도 살필 수 있다. 양인광이 역적의 자손으로서 가문회복을 위해 벌인 작업들은 죄인의 아들이자 국왕이었던 정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였던 일련의 작업들을 연상시킨다.<sup>28)</sup>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부친의 비행에 대한 기록을 역사서에서 지우는 것이었다. 정조는 동궁 시절 영조에게 『승정원일기』에 실린 사도세자의 비행과 관련된 기록들을 세초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승정원일기』에 실린 당시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못 본 사람도 없어 사람들의 이목을 더럽히고 있으니,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었다.<sup>29)</sup> 정조는 아들로서 부친의 비행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거론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영조는 이미 실록에 사실이 전함을 들어 『승정원일기』를 세초하도록 허락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간청은 양인광이 임종 직전 황제에게 부친의 역명을 사책에서 지워달라고 청한 것과 흡사하다. 그 역시 부친의 죄명이 사책에 남아 거론되는 것을 괴로워하며, 아예 부친의 이름이 거론될만한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과 공적까지 모두 지우려 한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정조가 새롭게 국정을 이끌기 위해 부친의 비행을

27) <양문충의록> 32권 32책.

28)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의 처지는 정조가 놓았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사도세자의 죄명 역시 반역죄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도 양세의 악행을 조명하며 ‘양임-양세-양인광’의 서사가 ‘영조-사도세자-정조’의 서사와 유묘한 구도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87면).

29) “喉院日記에 그때의 사실이 죄다 실려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못 본 사람이 없으며 본 자는 전하고 들은 자는 의논하여 온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더럽히는 것으로 말하면, 신의 私心이 애통하여 거의 곤궁한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至於喉院日記, 盡載其時事實, 無人不知, 無人不見, 見者傳之, 聞者議之, 流布一世, 塗人耳目, 臣之私心哀痛, 殆若窮人之無所歸).” 『영조실록』, 1776년 2월 4일 기사.

정리했듯이,<sup>30)</sup> 양인광 역시 가문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역사 지우기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소설사적 의의

<양문충의록>은 주인공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고통에 동정 어린 시선을 보인다. 대개의 경우 반역자와 그의 일가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확실히 정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하지만 <양문충의록>은 반역자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 가문회복 과정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반역자로 지목된 경우 해당 인물은 물론이고 같은 가문의 구성원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록마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 반역자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었으며 주변 인물들 역시 반역자와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지우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문충의록>에서 반역자의 가문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이것이 비록 허구성이 짙은 소설일지언정 금기시되었던 것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문면에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양문충의록>이 향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의 민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하다.<sup>31)</sup>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에서부터 1862년의 임술민란, 1894년의 동학 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민란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며<sup>32)</sup> 민란의 주동자들은 반역죄의 명목으로 다스려지곤 했다. 이 외에도

30) 정조는 부친과 자신을 위해, 나아가 왕실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위해 관련 기록을 말소하거나 목살하는 방법으로 사도세자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갔다(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245면).

31) <양문충의록> 40권본의 필사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기묘년 7월부터 경진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미상으로 남아있다. 다만 <양문충의록>의 작품명은 1894년에 간행된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 처음 보이며, 이 작품의 전편에 해당하는 <조씨삼대록>에 대한 기록은 1848년에 완성된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양문충의록>은 대략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향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조광,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0, 75~82면.

신유박해 등 천주교 박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갔다. 이러한 사건들은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배경과 관련하여 유의할 만하다. 당대의 독자들은 현실에서 반역으로 치부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반역자의 가문과 그 자손들을 다룬 이 작품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소설의 현실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양문충의록>이 직간접적으로 당대의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문충의록>은 소설의 허구성이 지닌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현실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역자의 가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현실이었다면 이미 몰락하거나 몰살당했을 반역자의 후손들이 <양문충의록>에서는 가문을 재건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과거의 역사 기록을 지움으로써 가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재를 구속하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망을 반영하며,<sup>33)</sup>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고 현재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외에도 <양문충의록>은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등 관련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독자적인 특징을 보인다. <양문충의록>은 <현몽쌍룡기>라는 동일한 작품에서 비롯되었지만 양부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전편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반역자 가문의 과거 청산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전면에 내세워 <조씨삼대록>과는 다른 지향점을 보인다. 이는 <양문충의록>이 후속작으로서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도 중심사건을 다루는 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33) 현실에서 역적 혐의는 그 조상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선조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손도 그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에서 역적의 후손은 몇 대가 흘러도 역적의 후손일 뿐이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역적으로 몰려 죽은 조상을 신원하기 위한 노력이 대를 이어 지속되곤 했다. 대표적인 예로 오시수의 후손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의 신원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의 아들 오상유가 1689년에, 손자 오성운이 1743년에 각각 격쟁하여 오시수의 억울함을 알렸으며, 1783년에는 증손자인 오석충이 격쟁하여 그의 관작을 회복시킨 바 있다(정병설, 『죽음을 넘어서-순교자 이순이의 육중편지』, 민음사, 2014, 170~173면).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양문충의록>이 반역자의 집안을 다룬 다소 파격적인 설정의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개의 작품들이 선대의 혁혁한 공적과 주인공의 훌륭한 자질을 묘사하면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양문충의록>은 주인공이 부친의 반역사건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다른 작품들이 가문의 창달을 대단원으로 삼는 것과 달리, <양문충의록>은 주인공과 그의 자손들이 가문을 현창한 후, 선대의 죄를 씻기 위해 역사기록에서 가문의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중반부의 서사에서 주로 전개되는 부자갈등과 부부갈등, 처첩갈등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작품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의식과 구조의 측면에서 살핀다면 <양문충의록>은 상당히 개성적이고 문제적인 작품이다.

<양문충의록>에서 양인광은 부친의 반역사실을 알게 된 후, 평생 동안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책에 기록된 부친의 죄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공적으로도 부친의 죄상을 만회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는 임종에 이르러 사책에서 부친의 죄상과 자신들의 공적을 모두 지우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선에서 부친의 일을 마무리 짓고 가문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가문회복 방식은 양인광의 개인적 측면과 양부라는 가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인광은 사책에서 부친의 죄명을 지움으로써 자신이 죄인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했던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양부는 가문의 반역사건을 상기시킬만한 기록들을 모두 지움으로써 후손들이 새롭게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완전한 가문으로서 국가와 결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양문충의록>은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주인공을 다룸으로써 여타 작품들과는 다른 지향점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반역자의 가문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이것이 비록 허구성이 짙은 소설일지언정 금기시되었던 것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를 문면으로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문충의록>은 소설의 허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역자의 가문과 그 후손들이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결말 방식은 현재를 구속하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양문충의 록>은 민란의 진압과 천주교 박해 등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작품의 소재와 주제, 전개방식 등의 측면에서 색다른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문희 외 역, 『현몽쌍룡기』1~3,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외 역, 『조씨삼대록』1~5, 소명출판, 2010.  
조혜란 외 역, 『소현성록』1~4, 소명출판,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양문충의록』1~7,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양문충의록』 32권 32책.  
조선왕조실록 DB.

### 2. 단행본

-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송성욱, 『장서각 고소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조 광,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0.

### 3. 논문

-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 이본비교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35~67면.  
강미선,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사구조 연구」, 『어문연구』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207~229면.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014면.  
이지하, 「대하소설 속 親同氣 간 善惡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339~361면.  
임치균, 「<현몽쌍룡기> 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 223~247면.  
정병욱, 「낙선재문고의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회, 1969, 2~65면.  
정선희, 「영웅호걸형 家長의 始原-<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면.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

- 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59~398면.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화연구』4,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 29~62면.
-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146, 국어국문학회, 2007, 411~441면.
-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경계와 작품 성격」, 『어문연구』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161~184면.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200면.
-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166, 한국사연구회, 2014, 107~141면.

## The Method and Meaning of Recovering Family Honor in *Yangmunchunguirok*

Yoo, In-seon

*Yangmunchunguirok* is a unique and problematic work that deals with a traitor's family. Different from similar works that begin by describing the heroic contributions of the main character's ancestors and exceptional talents of the hero, *Yangmunchunguirok* starts from the scene where the protagonist, Yang Ingwang, recognizes the treason of his father. The narrative proceeds with the struggles of Yang Ingwang to redeem the mistake of his father and regain the family's honor.

Yang Ingwang achieves a glorious exploit with his descendants and thus attempts to redeem his father's treason. However, this only serves to highlight the past incident, causing others to condemn Yang Ingwang and his family. Finally, nearing his death, Yang Ingwang attempts to settle the precedent affair and recover the family's honor by removing his father's crime along with his and his descendants' achievements.

This way of recuperation is a liquidation of the family's past, but also can be understood on some level as a healing of Yang Ingwang's pain that came from his suffering as the son of a criminal. Also it removed all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family's history, which created a foundation for his descendants to establish a new standing with the nation.

*Yangmunchunguirok* can also be read for its social context of the la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e period when this piece was widely circulated. Also this work shows a different side of the classical novels of the la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in terms of material, subject, and narrative method.

keywords: *Yangmunchunguirok*, *Hyeonmongsangryonggi*, treason, recovering family honor, erasing history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